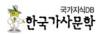
남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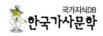
[해제]

<남천가>는 "신미 모 춘삼월 삼십일 요산 선생이 서 하노라"라는 내용을 고려해 보면 작자는 요산으로 볼 수 있고, 창작시기는 신미(辛未)년인 1871년이나 1931년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규방가사 작품이다. 위에서 아래로 죽 이어 쓴 종서의 형태이고, 순국문으로 된 필사본이며, 현재 '담양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모두 115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4음보의 가락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여자로 태어나서 많은 고생하고, 고운 얼굴은 부모님께 타고났으며, 순한 성정은 하나님께 선천적으로 타고났으니 여자도리 잘 닦자고 한다. 또 이웃의 계녀 본을 받아제사 예를 배우고, 사친도(私親道)와 의복제도 등을 배우자고 한다. 그래서 십오 십육 세가 되면 군자만나 시집가련다 라고 한다. 즉, 시집가기 전에 행신 범절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후기 양반 가문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가사(歌辭)를 지어 전승하였는데, 이 작품도 이 때 창작된 것으로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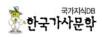
[원문]

남천가

남조라도 일을진틴 녀조로서 엇덜쑌야 녀조년광 니십세난 반청츈언 고ぐ호고 온청츈니 느져진니 낙화시절 분명호다 쏫썰지고 적막호다 황봉박접 만타한들 향기업서 싸라오며 조치업서 느라들가 **스람으로 절문**뛰는 가을의도 츈절리요 어언간에 늘거지면 봄당히도 추절리라 절문띠예 츈절당히 더고는 엇더할가 오민일염 성각호되 나봄가면 어니할고 초호신명 최박호야 봄얼보고 조탄한니 전성에 무삼죄로 세상장부 못되나고 인간녀조 도녀는서 규즁고성 호단말가 조퇴화용 고은얼골 부모님예 타서노고 완만청종 순한성정 호나님꼐 품부호야 녀조도리 싹자호니 스스니 극난터라 치빈치조 호올적에 뉴지계녀 쏜얼바다 예상조젼 조심호야 제사예럴 비와잇고 부모지소 가올적에 호긔의성 쏜얼바다 남유녀뉴 분간호야 스친도럴 비와잇고 침선방적 호올적에 의복제도 비와니고 정구지님 호올적에 음식지절 아라씨며 가갸거겨 언문익켜 동뉴통정 호야잇고 언어범절 두로합처 녀공자질 호난거시 미오초등 못호오나 썩길만언 호건마는



십오십뉵 얼넌지나 십구니십 당두토록 건건곤순 쪽니업서 허송방연 무삼일고 고은얼골 순한성정 히로군자 만나씨면 쏫침직도 호걸마는 어니그리 무정호며 우귀호여 가올뛰는 구고님얼 며신되도 밧듬직도 호건마는 어니그리 그러호고 시틱소즁 놉피아라 제사띄럴 당한되도 도음직도 支건만눈 어이그리 그러支며 순종군자 호라호면 음식의복 제도범절 남뒤도록 호건마는 어니그리 그러한고 화피농의 당체화난 제왕가에 출가시요 도지요요 긔엽진언 빅성가에 츌가시라 엇던녀주 유복호야 퇴평성되 하고나서 혼닌니시 씨안일코 인간자항 길기던고 외복광부 뇌무원려 그뛰마춤 조흔뛰지 고니호다 훗시되난 조혼호긔 힘쎄다가 조혼어니 못할진된 실시호긔 무삼일고 녀진혼난 과시호면 남진혼난 불급나요 농진혼난 과시호면 녀진혼난 불급이라 실시안코 갓치만 \ 봉황원앙 몟몟친고 서싹마에 엇던동뉴 노와동갑 컷건마는 소연전에 출가호야 아달낫다 긔별왓고 동쪽마에 엇던동뉴 노와한히 적건마는 숨연젼에 출가호야 녀식닛다 소문\고 압이우제 엇던동뉴 나와삼연 적건마는 거년분에 출가갈제 가매뛰에 마리쌀코 요직서고 한님며서 거들거리 가난모양 단장넘에 줌쏸본니 신가랑니 한쓀너라 뒤니우제 엇던동유 노와사년 적건마는 거월분에 초힝마조 서동부서 교비후에 빗옥갓탄 그신랑니 초립씨고 당혜신어 갑소쾌조 헌놀여서 오락가락 골목길에 문틈쟘쏸 엇듯본니 니상호고 신통터라 건니마에 엇던동뉴 노와오연 적건마는 소문잠쏸 드러본니 의양누리 쉬와싸지 굿부다니 한몸언 어이그리 무정한고 남에얼골 노도잇고 남에체모 노도알며 남에년광 갓치먹고 남에일도 알건마난



인간낙얼 전혀몰는 규즁독처 무삼일고 우리부모 야속한다 어이한여 실시한고 실시코저 호올잇가 조흔고절 가리다가 그러그러 느저씬니 수원수구 호올쏜야 너무과틱 흐지마소 욕교반졸 쉬오리라 포뉴미시 긔은녀조 노의소회 다룰쏜야 뉴여여옥 안니오나 길시뉴지 무정호다 소녀귀처 호올진된 퇴방미반 호나니라 잇띳맛춤 츈저리라 각항수한 교집호야 후원줌꽌 비회터니 각식화초 반갑도다 황조야 시럼마라 쑹거쑹님 쑹얼지워 포란화휵 노라들제 너어니 시럼호랴 츈규자한 니한몸언 미물마도 못할쑌야 도화니화 목단화며 중미작약 히당화는 모도합처 우거저서 봉접각각 누라드러 반함교티 반함수로 조양석월 우숨웃고 봉가접무 쑹얼지워 숨츈가절 조컨마는 후원안에 봉슌화는 봉접업시 향기는니 기이호다 봉슌화야 이성호다 봉슌화야 그이름도 뉴의호고 그자질도 선연호다 손구성춤 얼출제 봉황시의 시봉ᄶ요 남풍시오 현금언 임금슌ᄶ 조흘씨고 아람다온 니쏫일홈 화즁요슌 안일넌가 세상스람 무식호야 잇꼿친줄 몰는쎤가 이쏫보고 싱각호니 나소회는 다를쓴야 반홍반칙 고은티도 풍우성니 두러워라 쏫다지고 봉접오면 무삼츈흥 잇실난지 추라리 늣기피여 구월국화 되얏씨면 풍상요락 시럼업고 은처사라 호련마는 엇지타 봉슌화는 남과갓치 봄에피서 조흔봄얼 허송하고 그디도록 지단말가 인간공도 무가늬라 어느스람 안늘그가 인간조항 뙤맛추면 늘거진다 한탄하랴 구비구비 민친정회 폭이폭이 쓰인심스 부모동긔 친타호들 그런말얼 어니호며 노든동뉴 좃타한들 그른설화 어니호랴 혼조두고 탄식한일 그뉘라서 아올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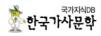
뉴뉴충쳔 아련마는 천불언혀 어니 하면 암암신도 아련마는 귀불언혀 어니 하라 춘규족탄 호난말언 예의손상 되련마난 정옥방주 미가호야 광봉치접 죠심호라 규즁심처 홀노안자 주주야야 품은탄식 혼닌잔추 회갑잔추 남가는디 다못가고화전띄와 춤외띄난 남가논디 못갈너라 어니호야 니한몸언 니십당년 허도한고월노홍승 속키비러 군자호구 만닌디도 군자연광 어리시면 니으청츈 반니너머어린실당 늘근신부 무삼자항 길길쓴야 규즁주탄 첩첩호는 수괴호맘 압헐막아름름니씨 노란니 되강호고 긋치노라신미모 춘삼월 삼십일 요산선성이 서 호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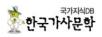
[현대역]

남천가

남자라도 일을진댄 여자로서 어떨소냐 여자연광1 이십세는 반청춘2은 고사하고3 온청춘이 늦어지니 낙화시절 분명하다 꽃떨지고 적막하다 황봉백접4 많다한들 향기없어 따라오며 자태없어 날아들까 사람으로 젊은때에 가을에도 춘절5이요 어언간6에 늙어지면 봄당해도 추절7이라 젊은때에 춘절당해 더구나 어떠할까 오매일염8 생각하되 나봄가면 어이할고 차호신명9 최박하여10 봄을보고 자탄하니 전생에 무슨죄로 세상장부11 못되나고 인간여자 되어나서 구중고생12 하단말가 자태화용13 고운얼굴 부모님에 타서나고 완만청종 순한성정 하나님께 품부14하여 여자도리 딱자하니 사사이 극난터라 채빈채조 하올적에 유재계녀15 본을받아 예상조전 조심하여 제사에를 배워있고 부모지소 가올적에 하기의성 본을 받아 남유여유 분간하여 사친도16를 배워있고 침선방적17 하올적에 의복제도 배워내고 정구지님18 하올적에 음식지절 알았으며 가갸거겨 언문19익혀 동류통정 하여있고 언어범절 두루합쳐 여공자질20 하는 것이 매오초등 못하오나 썩힐마는 하건마는 십오십육 얼른지나 십구이십 당도토록 건건곤순 짝이없어 허송방연21 무삼일고 고운얼굴 순한성정 해로군자22 만났으면 꽂침23직도 하건마는 아니그리 무정하며 우귀하여 가올때는 구고24님을 모신대도 밧듬직도25 하건마는 아니그리 그러하고 시댁소중 높이알아 제사때를 당한대도 도음직도26 하건마는 아니그리 그러하며 순종군자 하라하면 음식의복 제도범절 남대도록 하건마는 아니그리 그러한고 화피농의 당체화는 제왕가27에 출가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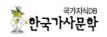
도지요요 기엽지는 백성가28에 출가시라 어떤여자 유복하여 태평성대29 하고나서 혼인일시 때안잃고 인간자항30 길기던고 외복광부31 내무원려32 그때마침 좋은때지 고이하다 후시대는 조혼33하기 힘쓰다가 조혼어이 못할진댄 실시하기 무삼일고 여자혼인 과시하면 남자혼인 불급34이요 남자혼인 과시하면 여자혼인 불급이라 실시안코35 같이만나 봉황원앙 몇몇인고 서짝마에 어떤동류 나와동갑 크건마는 사년전에 출가하여 아들낳다 기별왔고 동짝마에 어떤동류 나와한해 적건마는 삼년전에 출가하여 여식36낳다 소문나고 압이우제37 어떤동류 나와삼년 적건마는 거년분에 출가갈때 가마뒤에 머리땋고 요객서고 한님며서 거들거리 가는모양 단장넘에38 잠깐보니 신가랑이 한땔러라 뒤이우제39 어떤동류 나와사년 적건마는 거월분에40 초행41맞아 서동부서 교배후에 배옥같은 그신랑이 초립42쓰고 당혜43신어 갑사쾌자 휘날려서 오락가락 골목길에 문틈잠깐 언듯보니 이상하고 신통터라 건내마에44 어떤동류 나와오년 적건마는 소문잠깐 들어보니 의양나리 쉬와따지 굿부다니 한몸은 어이그리 무정한고 남에얼굴 나도있고 남에체모 나도알며 남에연광 같이먹고 남에일도 알건마는 인간락을 전혀몰라 구중독처 무삼일고 우리부모 야속하다 어이하여 실시한고 실시코저 하올있가 좋은고절 가리다가 그러그러 늦었으니 수원수구45 하올소냐 너무과택46 하지마소 욕교반졸 47쉬우리라 포뉴매시 기은여자 나의소회48 다를소냐 유여여옥 아니오나 길시유지 무정하다 사녀귀처49 하올진댄 태빙미반 하나니라 이때마침 춘절이라 각항수한50 교집51하여 후원52잠깐 배회터니 각색화초53 반갑도다 황조야 시름마라 쌍거쌍내 쌍을지워



포란화휵 날아들때 너어이 시름하랴 춘규자한 이한몸은 미물마도54 못할소냐 도화이화55 목단화며 장미작약 해당화는56 모두합쳐 우거져서 봉접57각각 날아들어 반함교태58 반함수로 조양석월 웃음웃고 봉가접무59 쌍을지워60 삼춘가절61 좋건마는 후원안에 봉선화는 봉접없이 향기나니 기이하다 봉선화야 이상하다 봉선화야 그이름도 유의하고 그자질도 선연하다 손구성춤 얼출제 봉황새의 새봉짜요 남풍시오 현금은 임금순짜 좋을씨고 아름다운 이꽃이름 화중요순62 아닐런가 세상사람 무식하여 이꽃인줄 몰랐던가 이꽃보고 생각하니 나소회나 다를소냐 반홍반백63 고운태도 풍우성64이 두려워라 꽃다지고 봉접오면 무슨춘흥65 있을런지 차라리 늦게피어 구월국화 되였으면 풍상요락66 시름없고 은처사라 하련마는 어찌타 봉선화는 남과같이 봄에피서 좋은봄을 허송하고 그대도록 지단말가 인간공도 무가내라 어느사람 안늙을까 인간자항 때맞추면 늙어진다 한탄하랴 자항없이 늙어지면 자연탄식 없을소냐 굽이굽이 맺힌정회67 폭이폭이 쌓인심사 부모동기 친타한들 그런말을 아니하며 놀던동류 좋다한들 그른설화68 어이하랴 혼자두고 탄식한일 그뉘라서 아올소냐 유유장천 아련마는 천불얹혀 어이하며 암암신도 아련마는 귀불언혀 어이하랴 춘규자탄69 하는말은 예의손상 되련마는 정옥방자 미가하여 광봉치접 조심하라 구중심처 홀로앉아 주주야야 품은탄식 혼인잔치 회갑70잔치 남가는데 다못가고 화전때와71 참외때는 남가는데 못갈러라 어이하여 이한몸은 이십당년 허도한고 월로홍승 속히빌어 군자호구 만난대도 군자연광 어리시면 나의청춘 반이넘어 어린신랑 늙은신부 무삼자항 길길소냐



구중자탄 첩첩72하나 수괴한맘73 앞을막아 흥흥이씨 노란이 대강하고 그치노라 신미74모 춘삼월75 삼십일 요산선생이 서76 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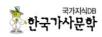


[각주]

- 1) 연광(年光) : 젊은 나이.
- 2) 청춘(靑春):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
- 3) 고사(姑捨)하고: 그만두고.
- 4) 황봉백접(黃蜂白蝶) : 황봉(黃蜂)은 꿀벌. 백접(白蝶)은 흰나비.
- 5) 춘절(春節) : 봄철.
- 6) 어언간(於焉間):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
- 7) 추절秋節): 가을철.
- 8) 오매일염(寤寐一念): '오매일념'임. 오매(寤寐)는 자나 깨나 언제나. 일념(一念)은 한결같은 마음. 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 9) 신명 : 흥겨운 신이나 멋.
- 10) 최박(催迫)하여: 핍박하여.
- 11) 장부(丈夫) : 다 자란 씩씩한 남자.
- 12) 구중(九重)고생 : 아홉 겹이라는 뜻으로. 여러 겹이나 층을 이르는 말로. 많은 고생을 이름.
- 13) 자태화용(姿態花容): 자태는 어떤 모습이나 모양. 주로 여성의 고운 맵시나 태도에 대하여 이르며 식물, 건축물, 강, 산 따위를 사람에 비유하여 이르기도 함. 화용은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
- 14) 품부(稟賦): 선천적으로 타고남.
- 15) 유재계녀(季女) : 유제임. '이웃'의 방언(전남). 계녀는 막내딸.
- 16) 사친도(私親道) : 자신의 친족(親族)에게 행하는 도리.
- 17) 침선방적(針線紡績) : 침선은 바늘과 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바느질. 방적은 섬유 원료로 실을 뽑아 피륙을 짜 내기까지의 모든 일. '길쌈'으로 순화.
- 18) 정구지님 : 정구는 '절구'의 방언(경북).
- 19) 언문(言文): 말과 글.
- 20) 여공자질(女功資質): 여공은 예전에, 부녀자들이 하던 길쌈질. 자질은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
- 21) 허송방연(虚送芳年) : 허송방년임. 허송(虚送)은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헛되이 보냄. 방년(芳年)은 이십 세 전후의 한창 젊은 꽃다운 나이.
- 22) 해로군자(偕老君子): 해로는 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며 함께 늙음. 군자는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
- 23) 꽂침 : 꽂히다.
- 24) 구고(舅姑):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 25) 밧듬직도: 받들다.
- 26) 도음직도 : 돕다.
- 27) 제왕가(帝王家): 제왕의 가정.
- 28) 백성가(百姓家): 백성의 가정. 백성은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국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예전에, 사대부가 아닌 일반 평민을 이르던 말.
- 29) 태평성대(太平聖代) :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어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



- 30) 자항(慈航) : 불교에서, 중생을 자비심으로 구하는 일.
- 31) 광부(曠夫) : 홀아비.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한 남편.
- 32) 원려(鴛侶): 배필.
- 33) 조혼(早婚) :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함. 또는 그렇게 한 혼인.
- 34) 불급(不及): 약속하거나 기약한 시간에 미치지 못함.
- 35) 실시안코 : 싫지 않고.
- 36) 여식(女息) : 딸.
- 37) 압이우제 : 앞의 이웃.
- 38) 단장(短牆)넘에 : 낮은 담 너머에.
- 39) 뒤이우제 : 뒤의 이웃.
- 40) 거월분에(去月): 지난달에.
- 41) 초행(醮行): 신랑이 초례를 지내기 위하여 처가로 감.
- 42) 초립(草笠): 예전에, 주로 어린 나이에 관례를 한 사람이 쓰던 갓. 썩 가늘고 누런 빛깔이 나는 풀이나 말총으로 결어서 만들었음.
- 43) 당혜(唐鞋): 예전에 사용하던 울이 깊고 앞 코가 작은 가죽신. 흔히 앞 코와 뒤꿈치 부분에 꼬부라진 눈을 붙이고 그 위에 덩굴무늬를 새긴 것으로, 남녀가 다 신었음.
- 44) 건내마에 : 건너 마을에.
- 45) 수원수구(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냐는 뜻으로,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 46) 과택: '과댁(寡宅)'의 방언(강원, 경기, 경남, 전라, 충북), 홀어미, 과수댁(寡守宅)의 준말,
- 47) 욕교반졸 (欲巧反拙) : 잘 만들려고 너무 기교를 다하다가 도리어 졸렬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뜻으로, 너무 잘하려 하면 도리어 잘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48) 소회(所懷) :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 49) 사녀귀처(士女貴處): 사녀는 남자와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귀처(貴處)는 귀지(貴地)인데, 상대 방의 사는 곳에 대한 경칭임.
- 50) 각항수한(各項) : 각항은 각가지. 수한은 (愁恨) 근심하며 원망함. 즉, 여러 가지 근심과 원망.
- 51) 교집(交集): 이런저런 생각이 뒤얽히어 서림.
- 52) 후원(後園) : 집 뒤에 있는 정원이나 작은 동산.
- 53) 각색화초(各色花草): 각색은 갖가지의 빛깔. 화초는 꽃이 피는 풀과 나무 또는 꽃이 없더라도 관상용이 되는 모든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54) 미물(微物)마도 : 작고 변변치 않은 물건보다도.
- 55) 도화이화(桃花梨花) : 도화는 복숭아꽃. 이화는 배꽃.
- 56) 목단(牧丹)화며 장미(薔薇)작약(芍藥) 해당화(海棠花)는 : 목단은(牧丹) 모란. 장미(薔薇)는 장미과 장미속의 관목을 통틀어 이르는 말. 높이는 2~3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깃 모양임. 5~6월에 담홍색, 담자색, 흰색 따위의 꽃이 핌. 개량 품종이 많은 관상 꽃나무임. 작약(芍藥)은 작약과의 여러해살이풀을 통틀어 이르는 말. 꽃이 크고 아름다워 정원에 관상용으로 재배함. 백작약, 산작약, 적작약, 호작약 따위가 있음. 해당화(海棠花)는 장미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1~1.5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우상 57) 봉접(蜂蝶): 벌과 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58) 교태(嬌態): 아리따운 자태.
- 59) 봉가접무(蝶舞): 접무는 나비춤. 벌과 나비가 노래하고 춤을 춤.
- 60) 쌍을지워 : 쌍을 이루어.
- 61) 삼춘가절(三春佳節) : 봄철 석 달의 좋은 시절.
- 62) 화중요순(花中堯舜) : 화중은 꽃 속. 또는 여러 가지 꽃 가운데. 요순은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
- 63) 반백(半百) : 백의 절반인 쉰.
- 64) 풍우성(風雨聲): 바람과 비가 함께 내리는 소리.
- 65) 춘흥(春興) : 봄철에 절로 일어나는 흥과 운치.
- 66) 풍상요락(風霜搖落) : 풍상은 바람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요락은 흔들리어 떨어짐. 또는 흔들어 떨어뜨림.
- 67) 정회(情懷): 생각하는 마음. 또는 정과 회포를 아울러 이르는 말.
- 68) 그른설화 : 그런 이야기.
- 69) 춘규자탄(春閨自歎) : 춘규는 젊은 여자들이 거처하는 방. 또는 부인의 침방. 자탄은 자기의 일에 대하여 탄식함.
- 70) 회갑(回甲): 환갑(還甲).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예순한 살을 이르는 말.
- 71) 화전(花煎)때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진달래나 개나리, 국화 따위의 꽃잎이나 대추를 붙여서 기름에 지진 떡을 먹는 시기.
- 72) 첩첩(疊疊): 중첩한 모양. 겹친 모양.
- 73) 수괴(殊怪)한맘 : 수상하고 괴이한 맘.
- 74) 신미(辛未) : 육십갑자의 여덟째.
- 75) 춘삼월(春三月) : 봄 경치가 한창 무르익는 음력 3월.
- 76) 서(書): 글.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